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논문

영어 AS 구문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하 늘

영어 *As* 구문 연구

A Study on English *As*-constructions

2014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하 늘

영어 *As* 구문 연구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하 늘

하 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귀석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조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남근 (인)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ii
I. 서 론	1
II. <i>As</i> 구문의 통사적 분석	3
A. 이동분석	5
B. 도치분석	12
III. <i>As</i> 구문의 의미적 분석	17
A. Potts의 연구	19
B. Lee-Goldman의 연구	20
IV. <i>As</i> 구문의 화용적 분석	22
A. <i>As</i> 의 문법화	22
B. <i>As</i> 의 문법적 발달	26
C. <i>As</i> 의 용법	28
V. 결 론	38
참고문헌	41

그림 목 차

<그림1> As 의 문법화 경로 27

ABSTRACT

A Study on English *As* -Constructions

Ha Neul

Adviser : Prof. Lee Nam-geun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haracterize and categorize the *as*-constructions through th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analyses of the *as*-constructions. For the purpose, this thesis begins with a brief examination of the origin of *as* and presents the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analyses in turns.

For the syntactic analysis of *as* constructions, this thesis basically follows Potts(2002)'s, who divides parenthetical *as*-clauses into the CP-*as* type and the Predicate-*as* type. These terms indicate whether the gap inside the *as*-clauses is, respectively, proposition-sized or predicate-sized. The syntactic analysis concentrates on showing th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internal structures and the syntactic properties by means of the movement and the inversion of *as*-constructions.

This thesis semantically analyzes the *as* constructions on the basis of Potts(2002), Lee-Goldman(2007, 2008). The *as* constructions are regarded as adverbial modifiers in this thesis.

Finally this thesis provides an pragmatic analysis of the *as* constructions, which argues that the emergence of functional marking of *as* is attributable to metonymy, pragmatic inference, frame of focus variation. Furthermore,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idiomatic and practical usages of *as* is also provided. To understand the usages of *as* clearly, this thesis examines more than 10 points which regularly case difficulty to learners of English.

I. 서론

영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존재하며 그 의미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예를 들어 영어 *as*는 (1)과 같이 고대 영어에서 원래 *also*와 같은 단어였으며 *swa*의 강화로 유래된 고대영어 *ell swa* 또는 *ellswa*의 발음 축약의 결과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1) a. Seo beorhtnys is eallswa eald swa ðæt fyr þe heo of cymð.
(OE. *Ælfric Catholic Homilies: 1st Ser.* (Royal) xx. 337)
- b. He ne mei þider cume also raðe se he walde.
(a 1225 (OE) *MS Lamb. in R. Morris Old Eng. Homilies 1st Ser.*157)
- c. Swa litel þu gewurþe alswa linsectcorn.
(IOE *Metrical Charm: Against Wen* (Royal 4 A. xiv) 11)

더불어 *so*와 함께 강화된 형태인 [ellswa + swa] or [swa + ellswa]는 주절에서 (1a,b)처럼 동등 비교를 표현하는 선행사나 지시부사로서 고대영어에서 사용되었으며 (1c)와 같이 관계접속사로도 사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OED online).

중세 영어에서 *as*는 *also*의 음운축약에서 파생된 것으로 오직 앞에 나온 명사나 문장의 일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했으며 현대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품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nline(2014)를 통해 확인했다.

- (2) a. I'm just as happy at home.
- b. Do in Rome as the Romans do.
- c. We are tired, as anyone can see.
- d. He poses as a friend.

(2a)는 부사로 등가물을 비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2b)는 접속사로 쓰여 '~와 같이'

를 표현하고 있으며 (2c)는 관계대명사로 ‘~하는 바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2d)는 전치사로 ‘~로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영어에서 *as*는 용도가 광범위한 기능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래 의미하던 것 이외에 좀 더 많은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문맥에 맞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많은 영어 단어들 중에서도 *as*-형태소를 기반으로 구조적 특성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 통사적 속성과 *as*-구문의 여러 가지의 의미, 더불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화용적인 측면에서 *as*-구문을 분석하여 *as*-구문 용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첫째, Potts(2002)에서 제시한 *as*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술어-*as* (Predicate-*as*) 유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통사적 특성을 알아보며 둘째, 이동현상과 생략현상의 비교를 통해 공소(gap)의 본질을 분석하며 셋째, 술어-*as*의 다양한 도치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통사적 속성을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는 *as*의 명시적 의미가 의미구조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의미론적 측면에서 Potts(2002)와 Lee-Goldman(2007,2008)의 분석을 통해 의미적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첫째, *as*가 지니고 있는 어휘 항목이 문법적(grammatical), 기능적 표지(functional marker)로 바뀌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에 대해 밝히고 둘째, 그에 따른 문법적인 발달을 살펴보고 셋째, *as*용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기술하며 그에 따른 *as*가 지닌 다양한 관용적 표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논의된 *as*를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II. *As* 구문의 통사적 분석

먼저 *as*-구문의 본질적인 유형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장을 시작하고자 한다. 다음 Potts(2002)에서 제시한 예를 통해 유형을 확인해보자.

- (3) a. The new film was full of violent scenes, as they claimed.
- b. They claimed that the new film was full of violent scenes.
- c. Ames stole important documents, as the FBI said he had.

Potts(2002)은 *as*절을 공소(gap)의 유형에 따라 (3a)를 보충어-*as*인 'CP-*as*' 와 (3c)인 술어-*as*를 'Predicate-*as*'로 분류하고 이를 *as*-삽입절(*as*-parenthetical)이라고 부르고 있다. 먼저 (3a)인 보충어-*as*를 (3b)로 표현함으로써 (3a)의 *as*-절에 있는 보문소(complementizer) 'that'이 생략된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as*절에서 생략된 성분을 예측 할 수 있는 공소(gap)를 절 공소(clausal gap)라고 하며 보충어-*as*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사들은 주로 *as everybody knows, as you may remember, as you say, as I can see, as I have said, as I'm told* 등이 있다. (3c)의 술어-*as*도 역시 서술적 공소(predicative gaps)를 지니는데, 이와 같은 서술적 공소는 *as*절에서 copula verbs¹⁾ 와 auxiliary verbs²⁾ 등을 사용하여 주절의 서술어와 대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앞에서 살펴본 (3)과 다르게 구별해야 하는 비삽입절에서의 부가어-*as*인 'adjunct-*as*'가 있는데 아래 예문 (4),(5)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4) a. Maria sang the aria as *Sophia sang did*.
- b. Maria sang the aria as *Sophia sang it* - with a full dramatic tone.

(5) Maria sang the aria, as *Sophia did*.

1) seem, appear

2) modals, copula verbs *be* and *has*, dummy *do*

(4)는 근본적으로 독특한 부가어-*as*를 가리키며 발화내용을 나타내는 음운 정보 이외의 억양이나 강세 등이 통합된 것으로서 부사적 관계사라 볼 수 있다. 예문 (5)는 앞에서 살펴본 (3c)와 같은 술어-*as*로서 독립된 억양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사적 공소(verbal gap)를 항상 포함한다. 반면 (4a)는 대조적으로 선택적인 VP 생략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 볼 때, (4a)는 (5)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전자는 Maria 와 Sophia가 아리아를 불렀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리아를 평범한 방법으로 불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as*-삽입절은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통사적 분포, 자연스런 조음적인 해석 그리고 삽입구의 억양 특징으로 인해 통사적, 의미적, 음성학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6)을 통해 기본적인 통사적 속성을 더 확인 할 수 있다.

- (6) a. James ran the marathon last week, as Jane mentioned he would.
- b. Jane was interested in making films, as her brothers had been.

(6)의 예문처럼 술어-*as*와 보충어-*as*는 둘 다 주로 S 나 VP 부가어(adjunct)의 수식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더불어 (6)의 예문들은 아래의 (7c)처럼 절 내부에 나타날 수도 있다. 즉, 문부사의 삽입구처럼 똑같은 분포 유형을 지니는 것을 보여 준다.

- (7) a. The apples were fresh, as were _ the carrots.
 - b. As Wesley had done ____, and as Rational Dissenters very frequently did ____, they alluded to the natural rights of all men.
 - c. They are paid, as ambulance drivers should be __, for 'being there'...
- (Lee-Goldman 2007:6)

예문(7)을 통해 술어-*as*절은 문장 처음과 중간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위치하여 부가적으로 쓸 수 있다. 즉 분포속성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8) My silence is, as you see, as you hear, sometimes broken by Monk's music, by the words of his stories (COCA: 1997 FIC Esquire).

아울러, 말뭉치자료(COCA)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as*-삽입절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통사적 구조에서의 속성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통사적인 기본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자.

A. 이동분석

as-구문의 기본적인 속성 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생략된 성분 공소(gap)가 있다는 것이다. 공소(gap)란, 정상적인 문장에서 임의의 구성 성분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는 현상을 일컬으며 *as*절에서도 이러한 공소가 보여 지는 것을 예문(3)을 통해 확인 하였다.

Potts(2002:626)은 공소의 속성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첫째는 공요소(null element)의 이동과 관련된 문장 구조들의 성질로 인해 공소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생략 현상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설 중 이동분석이 정확한 것이라고 규명하고 있는데 그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을 통해 통사적구조의 특징을 확인해 보자.

우선, 이동규칙은 WH-movement, NP-movement등이 이동하는 것과 더불어 화제화변형규칙(Topicalization), Tough-Movement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동현상은 어떤 요소가 심층 구조에서의 원래 자리에서 이동하여 표층구조에서 다른 어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동현상을 기본으로 Potts(2002)는 공소의 속성을 어떻게 구별 했는지 살펴보자.

첫째, 술어-*as*절에서 공소는 오직 국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국부성(locality)은 모든 문법 원리의 기본적인 자질로 문법관계를 이루는 두 구성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고, 엄격히 규정되는 영역(domain) 내부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부성해석이 주는 증거는 *as*절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략현상의 예시를 비교함으로써 *as*절이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생략현상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Potts³⁾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자.

(9) The fact that Sue read the map carefully probably means that she stayed on the trails. But we aren't sure whether Chuck did.

(9)에서 밑줄 친 *did*에서 생략된 VP는 *stay on the trails*와 같이 국부적인 해석과 또는 *read the map carefully*로 비국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즉 동사구 생략 구문인 위의 예문은 비국부적 요소들을 선행사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동사구는 문장 밖의 요소들인 *stay on the trails* 와 *read the map carefully* 등 두 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에 반해 술어-*as*절의 공소는 국부적인 구로 제한되어 있는데 다음 예문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해 보자.

(10) The fact that Sue read the map carefully probably means that she stayed on the trails, as did Chuck.

예문 (10)이 보여주는 것처럼 *as*절에 있는 공소는 국부적 관계가 있는 *stay on the trails*만 선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read the map carefully*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즉 예문 (9)와 (10)의 대조는 *as*절의 공소와 동사구 생략현상의 공소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보충어-*as*절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암시하고 있음을 다음 (1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1) a. That space has four dimensions is widely known. They announced {it/that} earlier.

b. That space has four dimensions is widely known, as they announced.

3) Potts(2002:627)

즉 (11a)에서 가리키는 *it/that*은 주절에 있는 주어(matrix subject)에서 선행된 부분인 *that space has four dimensions is widely known*과 *space has four dimensions*를 찾기 쉬운 반면 (11b)인 보충어-*as*절의 공소는 구성 성분으로부터 해석을 얻을 수 없다. 즉 (11b)는 오직 절 전체인 *That space has four dimensions is widely known*가 공소 제공자가 되는 것이며 *space has four dimensions*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술어-*as*가 생략현상보다 이동현상과 더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as*가 공소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장거리 의존성과 강한 섬 제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12)를 통해 확인해 보자.

- (12) a. "... time having at last reached for the logician, just as I am sure he knew it would ___ ."
 b. "...even though people were crabby and snappish ... she DID, mostly, love them as she knew she ought to ___ ."

(12a)는 술어-*as*를 (12b)는 보충어-*as*의 예문을 Potts(2002:627)에서 보여주고 있다. (12)는 강한 섬에 의해서만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임의 수의 문장 경계를 넘어 일거에 이동한 장거리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Potts(2002)는 *as*절의 공소가 강한 섬 제약을 준수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한 섬 제약은 엄격한 국부성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는 지의 여부에 따라 장거리 이동과 연속 순환 이동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한 섬에는 주어 섬, 부가어 섬, 관계절 섬 등이 있는데 Potts(2002)에서 제시한 비문을 통해 확인해보자. 다음(13-17)의 *t*는 이동한 흔적(trace)을 나타내고 있다.

- (13) a.*Durians are delicious, exactly as Nina spoke with a grocer who claimed *t*.
 b.*Nina quickly bought two durians, exactly as we met a chef who did *t*.

- (14) a.*Jim Durrow is a blackjack ace, just as they smiled politely when he reported t.
 b.*Jim Durrow counts cards, just as the owners arrested Sammie when he did t.
- (15) a.*The word *if* is a verb, just as the linguist's claiming t made everyone smirk and giggle.
 b.*He has strong arguments for the position, exactly as the linguist's claiming he does t made everyone smirk and giggle.
- (16) a.*Americans have a right to cheap gas, just as George espoused his belief that the world should accept t.
 b.*Eddie fills his truck with leaded gas, just as they believed the report that he must t.
- (17) a.*Chuck rides a unicycle, just as Sue asked me whether I knew t.
 b.*Chuck rides a unicycle, just as Sue asked me whether I could t.

예문(13-17)에서 각 a는 보충어-*as*를 b는 술어-*as*를 포함하고 있다. (13)은 관계절 섬으로 관계절이 하나의 섬을 형성하여 관계절 내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가 섬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as*와 결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4)는 부가어 섬인데 부사절, 부사구, 전치사구등과 같이 핵심어에 대해서 수식하는 역할로 부가어 섬을 벗어 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문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5)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나 구가 하나의 섬을 형성하여 그 섬 구조내의 요소인 목적어가 섬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는 주어섬 제약을 보여주고 있다. 즉 (15a)에서 동사의 목적어인 *The word if is a verb*가 주어섬 내에서 그 밖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것이다. (16)은 복합 명사구 섬을 (17)은 Wh섬 제약을 위반하여 비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의 (13-17) 예문들은 강한 섬을 넘어 비문법성을 초래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VP생략들은 섬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섬 제약은 이동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as절*의 공소들이 이동현상과 연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음은 Engdahl(1983)에 의해 소개된 기생공소에 대해 마지막증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기생공소는 실제공소(real gap)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문장에서 동지표를 가지는 두 개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구문이다. 다음 예문 (18)을 보자.

(18) a. Which report did you file **t** without reading **pg**?

b. Who did you give a picture of **t** to **pg**?

영어에서는 (18)처럼 두 위치에서 동시에 *wh*-구가 이동하여 나간 것처럼 보이는 구문이 있는데, **t**로 표시된 공소는 *which article/who*가 이동한 흔적(trace)이고 일반적으로 이동이 허용되는 위치에 나타나는 공소를 진공소(true gap)라고 한다.

반면 **pg**로 표시된 공소는 진공소와 같이 선행사와 동지표 되는 여분의 공소로 기생공소(parastic gap 이후 **pg**로 쓴다)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생공소구문에서는 진공소인 **t**가 기생공소 **pg**를 인허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Ross(1967)는 기생공소가 대명사 삭제 규칙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았으나 그 이후 Engdahl(1983), Chomsky(1982)등의 학자들은 기저 생성된 공소라고 주장 하였고 이동현상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생공소는 섬 효과를 보임으로써 이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Chomsky(1986)는 하나의 운용소와 그것이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성립한다는 원리를 받아들여 하나의 공운용소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동현상과 관련하여 Postal(1994)은 다음 예시를 수정함으로써 *as절*에서의 추출이 기생공소를 허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19) a. Tony is able to run a four minute mile, as these who believed **pg** most strongly boasted **t** in class.
- b. Tony is able to run a four-minute mile, as he boasted **t** before trying to prove **pg**.

Postal(1994:85)은 (19)에 있는 **pg**들은 좌측 이동만이 기생공소를 허가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중량명사구(heavy NP)와 같은 우측 이동이 기생공소를 허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20)의 *as*절에 포함되어 있는 **pg**는 진공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19)의 **pg**들은 유사기생공소(pseudo-parasitic gaps)라고 부르며 이러한 *as*절은 이동 구문인 ‘covert right node raising’의 한 종류라고 결론짓고 있다.

반면 Potts(2002)에 따르면 술어-*as*에서의 유사기생공소들의 존재는 다중공소(multiple gaps), 기생공소(parasitic gaps), 유사기생공소(pseudo-parasitic gas)들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며 다음 예문을 통해 3가지의 고려사항을 제시하면서 그의 주장을 논증하고 있다.

- (20) a. Sue made a million dollars, as Frank could **t** without even trying to **pg**.
- b. Ames stole the document, as Chuck said he would **t** before the enemy did **pg**.
- c. Ames stole the document, as the spy who tried to **pg** attested that he had **t**.

첫째, (20)의 예문을 통해 Potts(2002)는 유사기생공소(pseudo-parasitic gaps)의 존재가 **t**로부터 공소이동, **pg**자리로부터 동사구 생략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b)를 살펴보면 **t** gap은 앞에서 언급했던 국부적인 제한으로 명료하게 *steal the document* 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gap은 중의적인 해석이 나온다. *steal the document*를 선행사로 받아서 해석하는 것과 local VP인 *said he would*

*steal the document*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술어-*as*구조와 대조시킨 보충어-*as* (21)은 **pg**의 해석이 앞에서 언급했던 **t**와 똑같이 명료하게 된다.

(21) Ames stole the document, as Chuck said he believed **t** before Kim formally announced **pg** at the morning.

즉 (21)의 **pg**는 *Ames stole the document*가 되며 *Chuck said he believed Ames stole the document* 는 **pg**로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생공소는 섬에 민감하다고 주장⁴⁾하는 것과 달리 Potts(2002)는 (20)에 있는 **pg**가 섬에 대한 민감성이 없다는 것을 (22)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22) a. Ames stole the document, as Chuck admitted **t** after Susanne (*met a reporter who)claimed **pg**.

b. Ames stole the document, as Chuck said he would **t** after Susanne (met a spy who had) tried to_ .

다시 말해 보충어-*as*인 (22a)와 술어-*as*인 (22b)를 비교하면서 (22b)는 동사구 생략의 전형적인 예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섬 효과에 민감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의 예문을 CP유형의 공소인 **t** 와 VP유형의 gap인 '___'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3) a. Ames stole the document, as the spy who tried to'___'attested **t**.

b. Ames stole the document, as Chuck claimed **t** before the enemy did.

c.* Ames stole the document, as the spy attested **t** and Bill tried to.

d.* Ames stole the document, as Chuck claimed **t** and the enemy did **t**.

(23c,d)를 통해 *as*절에서의 추출은 공소유형의 속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otts(2002)에 의하면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3가지 고려사항은 사실에 기반을

4) Chomsky(1986, § 10), Kennedy(1997), and others.

둔 근거가 아니라 Predicate-*as* (pseudo-)p-gaps의 존재에 대해 단지 가능성 있는 분석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B. 도치분석

보충어-*as*와 대조적으로 술어-*as*는 도치를 허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통사적인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데 다음 예문을 통해 다양한 도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as*-구문의 통사적 속성을 점검해 보자.

- (24) a. The scallops were fresh, as were the vegetables.
b. Jenny likes drumming, as does her brother.
c. James would have been productive, as would his colleagues in the group.

술어-*as*절에서의 도치는 평범한 주어-조동사도치(SAI)처럼 보인다. 즉 *as*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 뒤로 위치하면서 도치가 일어 난 것이며 일부 단어나 어구를 강조할 때 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치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동사들은 (25)처럼 무조건 조동사(Aux)를 써야한다.

- (25) a. James's list changed, as did his father's.
b. *James's list changed, as changed his father's

(25b)⁵⁾는 *as*-도치에 관여하는 동사들 중 조동사가 아닌 동사인 *change*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5) Cilicover and Winkler(2008:653)는 다음 예문을 통해 조동사가 아닌 동사들도 *as*도치가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 Dante has it, i.e. of the armorial devide of the Visconti,[as runs the note to the passage by Shelly HIMSELF]

그러나 이 예는 verbal gap 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Predicate-*as* clauses이 아니라 CP-*as* clauses이며 이 도치 유형은 Predicate-*as*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as*절에서의 도치는 SAI처럼 사용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as*절은 일반적인 도치와 대조적으로 생략성분인 공소를 요구한다.

(26) a. Did he (sleep)?

b. Malinda has slept for an hour, as has John(*slept).

(26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slept* 라는 공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Cilicover and Winkler (2008)에서 지적했듯이 조동사 집단들은 주어 앞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통사적인 분석을 받지 않는 *as*-도치절의 중요한 속성임을 (27)을 통해 알 수 있다.

(27) a. Sandy would have been very angry, as would Leslie.

b. Sandy would have been very angry, as would have Leslie.

c. Sandy would have been very angry, as would have been leslie.

(Cilicover & Winkler 2008:652)

셋째, 도치된 술어-*as*절의 주어는 대조초점을 지니고 있어 다소 제한적이다.

(28) a. David is learning Hindi, as is Mike.

b. Jane likes cooking, as does HE.

c. * It is raining hard, as was it.

(28a,b)에서 Mike와 He는 담화자가 지니는 전제를 수정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조초점을 지니고 있으나 (28c)에서 it은 담화상에서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아울러 Cilicover and Winkler (2008)에서 주장한 것처럼 *as*-도치절은 문장구조에 강조를 주는 도치 유형의 하나로 주어가 운율학적으로 강조되면서 읽기(reading)에 강조를 준다. 그들에 따르면 도치구문을 강조하는 다른 유형으

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다음 (29)를 살펴보며 자세히 확인해보자.

- (29) a. Sandy is more diligent than is her sister.
- b. As IOWA goes, so goes the NATION.
- c. The Yankees will make a bid for Beckham, and so will the RED SOX.
 (Culicover & Winkler 2008:649,650)
- d. Into the room strode a giant with green horns.

(29a)는 비교를 사용한 비교도치이며 (29b,c)는 부사구인 *so*-도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29d)는 *In to the room*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PP를 보충어로 취하고 있는 처소격도치(locative inversion)로 강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as*절의 도치 또한 문장 구조에 강조를 주는 도치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술어-*as*에서 도치된 절들은 (29)와 같은 강조도치구문에서 항상 그들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30) a. Sandy would have been very angry, as would HE.
- b. Sandy would have been very angry, as would have(been) Leslie/*HE.
- C. Sandy would have been very angry, as would've been HE.

첫 번째로, 도치된 *as*절의 주어는 (30a,b)처럼 무거울(heavy) 필요가 없다. 반면에 (30c)⁶⁾를 고려해 볼 때 (30b)처럼 조동사집단을 선호하는 좀 더 무거운 주어는 문법 제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로, *as*-도치는 처소격 도치경우와 대조했을 때 무거운 쪽을 이동시키는 중량 이동(heavy shift)과는 관련이 없다.

6) 그러나 Culicover and Winkler(2008)에서는, (30a)와(30b)사이의 대조에 관해서 명백한 설명을 주지 않는다.

(31) a. Accounts of the 1960s from those who were teenagers than are a vital source of data on youth cultures, as will be the accounts of 1980s teenagers to the students of 2010.

(Lee-Goldman & Ellsworth 2007:5)

b. Klaus would be happier in the north, as would Chuck in the south.

(Potts 2002 : 639)

다시 말하면 Cilicover와 Levine(2001)은 문장 맨 뒤로 옮겨진 밑줄 친 주어는 IP-adjunction을 의미하기 때문에 VP adverbial이 따라 나올 수 가 없으나 *as*-도치에서는 가능 하다고 (31) 예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31)에서 확인 했듯이 *as*-도치 절에서 절의 마지막 요소가 항상 주어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대조초점과 함께 주어 다음에 다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네 번째로 대조초점을 지닌 비주어구는 *as*-도치 절 끝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주어구는 VP나 Predicate Phrase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as*절은 동사적 공소 (Verbal gap)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32) BILL reads LATIN much better than does JOHN read GERMAN.

대조초점을 지닌 비주어구는 (32)인 비교도치절과 대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서술어가 주어를 뒤따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so*-도치와 처소격도치를 비교했을 때, 조동사가 아닌 동사들은 *as*-도치에 관여 할 수 없다.

(33) a. As runs the FOX, [so flies the BIRD]

b. Into the room hopped a giant RABBIT.

c. *Jane ran in the forest for an hour, as ran her brother.

게다가 처소격도치와 다르게 조동사 *do*는 *as*-도치에 쓰여 진다.

(34) a. Jane ran a marathon, as did her brother.

b.*Into the room did hop a giant rabbit with blue ribbons.

처소격도치의 예문인 (34b)는 조동사 *do*가 사용될 수 없으며 의문문에서도 조동사 *do*가 나타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34b)는 비문이 되는 것이다.

(35) a.*James ran the marathon, as we know will Jane.

b.*James ran the marathon, as do we know Jane will.

덧붙여 *as*-도치는 *as*가 결합된 상위 절에 적용되며, 동사적공소를 지닌 조동사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35)는 비문이다.

마지막으로 *as*절 안에 종속절이 있을 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36)을 확인해 보자.

(36) James ran the marathon this year, as we know Jane will next year.

(36)처럼 *as*절 안에 종속절이 있는 경우는 대조초점을 지닌 주어를 포함하며, 도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 *as*-구문의 통사적인 속성을 이동분석과 도치구문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며 *as*-구문이 주어나 동사구를 수식하는 부가어(modifiers)이므로 *as*-구문은 PP의 핵어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핵어와 보충어가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식어는 부가어가 핵어와 결합할 수 도 있다는 것이며 부가어는 기본적으로 구 요소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 필수적인 보충어와 달리 선택적인 요소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술어-*as*절은 동사적공소를 포함하고 있어 주절에 있는 술어로부터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질 장에서는 *as*-구문의 의미적 분석을 제시한다.

III. As-구문의 의미적 분석

통사론적으로 봤을 때 *as*절을 술어-*as*와 보충어-*as*로 분류하며 *as*-삽입절 (*as*-parentheticals)이라고 불렀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as*-삽입절은 주절과 통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절로 단순히 주절의 의미에 보충적 설명을 가하기 때문에 보충절(*supplementary*)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 예문 (37)을 통해 확인해 보자.

(37) a. The election results will be close, as he predicts.

b. The election results will be close. **He predicts that the election results will be close.**

Potts(2002)이 분석했듯이 *as*절에서의 의미적 기여는 관습적인 함축형태로 구성된다고 본다. 즉, (37b)의 굵은 글씨로 된 명제는 관습적함축인 반면 앞부분은 오직 함의인 것이다.

더불어 *as*절 자체의 의미해석에 대해 보자면 의미론적인 공소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예문 (3)을 살펴봤듯이 *as*절의 공소의 의미는 주절의 서술어로부터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단지 보충어-*as*와 술어-*as*의 차이가 있었다면 전자의 경우는 공소를 주절의 동사를 포함한 명제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주절에 있는 서술어만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서술어 또는 명제의 선택이 제한되어지는 것은 자매관계에 대한 통사적 제약(*sisterhood restriction*)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Potts(2002)은 제시했다. 즉 *as*절 공소는 자신과 자매관계에 있는 요소와는 공지시 할 수 있지만 비국부적 위치에 있는 요소와는 연결 될 수 없다고 언급했었던 것처럼 자매관계에 대한 통사적 제약으로 인해 공소의 선행사 역할이 의미해석을 할 때 중요하며 *as*절의 수식 가능 여부에 따라 주절이나 내포절 모두를 수식할 수 있으며 *as*절이 통사적으로 부착 되었을 때는 오로지 내포절만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매관계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사적인 제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살펴보면 *as*절 공소의 의미를 결정하는 문제는 *as*절이 부정 (negation), 조동사(modals) 그리고 다른 연산자(operators)에 대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 예문은 Potts(2002)이 제시한 부정이 무시된 경우이다.

(38) Alger was not a Communist, as Joe claimed.

예문 (38)과 같은 경우는 *Joe claimed Alger was not a Communist* 혹은 *Joe claimed Alger was a Communist*처럼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9) "There was no effort to destroy the buildings or tear them down, as has been alleged by the plaintiffs in this case."

(Potts 2002, originally from Morning Edition, NPR)

또한 위의 예문 (39)처럼 부정된 주어나 목적어와 함께 Non-negated readings 나타나며 (40)처럼 법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도 중의성이 발생한다.

(40) Al might be a liquor smuggler, as the Feds maintain.

즉 *the Feds maintain that Al might be a liquor smuggler* 또는 *the Feds maintain that Al is a liquor smuggler*와 같이 중의적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as*절의 기본적인 속성을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속성을 토대로 *as*절이 인접한 주절의 구조와 의미론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선행된 연구를 통해 자세히 제시한다.

A. Potts의 연구

Potts(2002)은 보충어(complement)에서 지정어(specifier)를 추출한 공연산자(null operate)를 가지고 있는 *as*절의 내적 구조에 초점을 두면서 *as*-형태소의 어휘 항목에 관하여 밝혔는데 그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as*-형태소가 관습적 함축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Potts(2002)는 (37a)와(37b) 사이에서 명시적 의미의 본질적인 차이는 추출한 것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의미는 어휘적 기반 접근법이 자연언어의 의미론인 것을 반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휘항목이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할 때, 올바른 예상들이 결과구조에 대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술어-*as*절은 오직 성질을 표현하는 구(phrase)에만 인접하는 반면에 보충어-*as*절은 명제적 단계에서 인접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as*절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습적함축의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내포된 절과는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Potts(2002)은 또한 의미적 관련성을 제시했으며 맥락은 명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자유로운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명제가 아니라 적용된 문맥 상으로 가장 중요한 개인에게 명제를 주는 속성이라는 것이다.

(41) [A woman deliberately returns home from work early to check up on her husband. She busts into the bedroom unannounced, where her husband is in bed with another woman.]

Woman: "Aha! You have, just as I suspected, skipped work today!"

예문 (41)과 같이 여자가 언급한 부분에 *as*가 인접했기 때문에 위의 예문 (41)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I suspected that you skipped work today* 로 의미부여가 되며 *I suspected that you were having an affair* 의 의미를 부여하진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의미적으로 *as*절의 부가위치에 대해 몇 가지 한계가 따르지만 4가지의 근본적인 부가위치에 대한 주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as*-형태소는 다음 (42)와 같은 보충어(*complement*)의 진실을 관습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 (42) a. If it is said that, as Joan claims, you are an excellent theremin player, then you can audition for our spooky band.
- b. Is it said that, as Joan claims, you are an excellent theremin player?
- c. It is not the case that it is said that, as Joan claims, you are a excellent theremin player.

보충적으로 설명하자면 (42)예문 모두 *Joan claims you are an excellent theremin player*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as*절의 명제나 속성유형의 의미를 제공하는 성분에 대해 어떠한 제약을 하지 않는다. 가령, 기능적용이 의미구성 방법으로 적용된다면, 부가의 인접을 의미적으로 명제이거나 속성지시를 통사론에 의해 허락한다는 것이다. 즉,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통사적 부조화를 허용하고, 특별한 부가제한이 다른 부사들에 의해 공유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에 의하면 *as*절은 *not, no longer, never, always*등을 포함한 문장에서 즉각적으로 다양한 중의성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VP에 인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as*절의 논항이 의미적 내용의 전부이다.

넷째, *as*절의 논항은 명제 또는 그 흔적의 유형에 따라 본질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B. Lee-Goldman (2008)

의미적으로 Lee-Goldman은 *as*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적인 공소의 속성이 관계절 분석을 지지해 준다고 주장한다. 즉, 비제한적관계절인 *which*처럼, *as*절에서의

공소의 해석은 통사적 구조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익힌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다음 예문 (7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3) a. The secret police will doubtless try to make sure there are no demonstrators chanting in the streets **on Saturday**, [as thousands did in Liepzing on Monday night.]

b. Yet, [just as Bruno claimed for an infinite universe], *this finite **modal** has "no center nor edge"* (Lee-Goldman 2008:4)

이탤릭체로 된 부분을 포함하여 통사적 성분으로부터 음영 처리된 부분은 *as*절 공소의 의미와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밑줄 친 부분에 의해 *as*절의 해석을 대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접근법은 앞에 나온 어구를 가리키는 특징에 관해 *as*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사이의 유사점을 확인 할 수 있지만 *as*절이 관계절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들이 없다고 그는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Lee-Goldman은 비제한적 관계절인 *which*뿐만 아니라 보충절(supplementary)인 *as*도 기본적으로는 문장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라고 보고 있으며 *which*는 또한 매우 제한적인 문맥⁷⁾에서 선행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분포상의 속성들은 더 많이 상세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s*-구문은 의미론적으로 공소의 해석에 의한 것으로 의미적 의존성이 통사적 의존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며 의미표상이란 용어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 Huddleston and Pullum(2002)을 인용하면서 Lee-Goldman은 선행사가 등위절인 비제한절은 등위접속사가 다음 예문처럼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i) Their apparently similar, sharply segmented body plan either arose more than once or-[which is also more than possible]- it tis very orimitive...
(Lee-Goldman 2008:6)

IV. As 구문의 화용적 분석

A. As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as*-구문이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로서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Englebretson(2007)가 언급했던 *as*의 기능적, 의미적 확장이 화용적 그리고 인지적인 언어사용에 관계가 있다는 사회적 측면을 바탕으로 *as*의 다양한 문법적 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Baik(2012:161)는 *as*의 문법적 표지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먼저 강조 표지(emphatic marker)를 확인해 보자.

- (44) a. He was as covetous as cruel. (1701 W. Wotton *Hist. Rome Alex.* iii. 504)
b. There she was at breakfast to see us of, as fresh as paint
and as bright as a button.
c. I love you as much as her.

(44)를 통해 강조의 표지는 비교하는 절에서 정도나 확장을 나타낸다. 통사적인 배열 구성은 살펴보면 [X as + adjective/adverb + as Y]⁸⁾이다. 선행하는 *as*는 지시부사적인 역할을 하며 후자의 *as*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as*는 X와 Y사이의 등가적인 비교를 표현하기 위해 흔히 연결요소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as*를 하나의 비교전략으로 그들의 감정, 생각, 또는 활동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44a)처럼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44b)처럼 그녀가 얼마나 발랄하고 빛이 나는지 강조하기 위해 화자는 하나의 강조전략으로 비교표현을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44c)처럼 “내가 너를 사랑 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극대화 하기 위해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그의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비교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무엇이 유사하고 더 우위한지 또는 무엇이 열등한지를 평가나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특정한

8) X와Y는 독립체, 사건, 상태들로 해석 될 수 있다.

현상이나 상황을 비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주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5) Living as I do so remote from town, I rarely have visitors.

또한 (45)와 같은 다른 통사적인 배열구성도 찾아볼 수 있다. 분사구문에서 사용되는 *as*는 [doing as X does] 화자의 언짢은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강조기능 또는 초점 조정 장치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표지는 가정사실표지(hypothetic-fact marker)이다. 선행하는 *as* 또는 *so*구조에서 X와Y 사이의 관계는 가정적 사실 또는 가정법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상태 비교를 나타내기 위해 보여준다. 이러한 *as*는 가정법을 지니며 문법적 장치인 ‘as if’ 또는 ‘as though’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확인 해 보자.

(46) a. Will serve as well as I were present there.

b. I often talk when I'm alone, And to myself declaim as loud
As I were speaking to a crowd.

(1820 W.Combe *Second Tour Dr. Syntax* II. xxviii.62)

c. It is possible to live so well as a child at High Easter Offerance.

(1995 I. Banks *Whit* xvi.259)

예문 (46)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동등비교에서 각 예문은 상태, 사건 등의 의미 확장을 떠올려 주면서 *as*는 가정적 사실기능 표지역할을 한다. 이러한 동등 비교에서 ‘만약 ~라면’까지의 가정적 사실인 *as*의 의미적 확장은 환유 전이에 기여한다고 Hopper & Traugott (2003)에서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로 *as*는 양보표지(concessive force marker)로 사용된다. 즉, 삽입절에서 주어나 서술어의 확장된 형태로 양보표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반대명제 또는 반대적 상황이나 이유 나타내는 것으로 ‘~이지만, ~에도 불구하고’처럼 쓰이는 것을 다음 예문 (47)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47) a. The King's own religion was suspected, as his brother's was declared.
 b. It has its prejudices, to be sure, as which of us had not?
 (1848 Thackeray *Bk.Snobs* xvi.62)
 c. They complain that it does not provide, as it clearly does not, for all cases of unemployment.

위의 예문 (47)에서는 *as*의 용법을 반대, 대조 상황 또는 이유나 대안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양보 표지로써 화자는 가정이 반대라는 알려진 상황이나 가까이에 새로운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의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X is equally to Y]에서 [X is contrary to Y] 로의 이런 기이한 의미적 발달은 화용론적인 협상을 위해 화자의 계획적인 전략을 조정하는 초점의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상 인간은 창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어진 상태나 사건을 개인의 주관적인 상상력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원인과 결과 사이의 특유한 관계를 다음 의미 확장의 시나리오를 통한 결과물으로써 요구되어지는데, 4단계의 의미 확장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자.

(48) Four stage Scenario

- Stage1: [X is equal to Y]
 Stage2: [X is as if Y]
 Stage3: [X is not identical with Y]
 Stage4: [X is different from Y]

1단계에서 2단계까지의 의미적 발달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낱말 대신 그 개념의 인접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화자의 추론에 의해 확장하여 사용하는 환유의 결과이다.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의미적 확장은 대안적인 방법을 창조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가능하다. 즉 망원경의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화자는 X와 Y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안적인 생각을 지니면서 현미경의 틀로 봤을 때, 화자는 X와 Y가 정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X와 Y를 새로운 견해로 본다.

관점의 변화 도움으로 얻어진 정보를 통해 화자는 새롭고 비꼬는 장면을 창조하기 위해 원인 장면과 대조를 이루는 반의적인 이미지처럼 추가적인 개념형성을 다룬다. 게다가 의미적 발달 3단계에서 4단계의 이동이 보여주는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각적으로 똑같지 않음을 다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편애를 지닌 주관적인 추론은 지각적인 이해에 대해 자연스런 방법의 환유적인 추론이 포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등에서 대조까지의 *as*의미의 확장을 큰 틀의 관점으로 보면 화자의 다른 초점 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의어 현상 (antonymization)의 출현은 다채로운 요인들과 의미적 메카니즘 사이에서 상호작용의 복잡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화과정에서 *as*의 네 번째로 습득된 기능은 원인표지(causative marking)이다.

- (49) a. As the door was open, I walked in.
- b. Hidden as it was by big trees, the tomb was difficult to find.
- c. He is not handsome; as having a flat nose.

(49)에서 사용되는 *as*는 행동에 대한 이유, 진술문, 믿음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원인표지 관계는 상태발생을 위한 책임으로써 받아들이는 상황이나 요인을 유발하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때 *as*는 ‘because’ 또는 ‘reason’ 으로의 의미적 발달이며 이런 변화는 주관화의 예로써 볼 수 있다.

*as*로부터 파생된 마지막 문법화 기능은 유사성표지(marker of likeness)이다. 이 경우 *as*는 ‘like’, ‘just as’, ‘for example’ 의 유사성표지로 나타낸다.

- (50) a. They were all dressed as clowns.
- b. We shall love as the birds in yonder tree.
 (1911 *Overland Monthly* Oct.292/1)
- c. 'Yes. And what do you feel now?' ' The good things.'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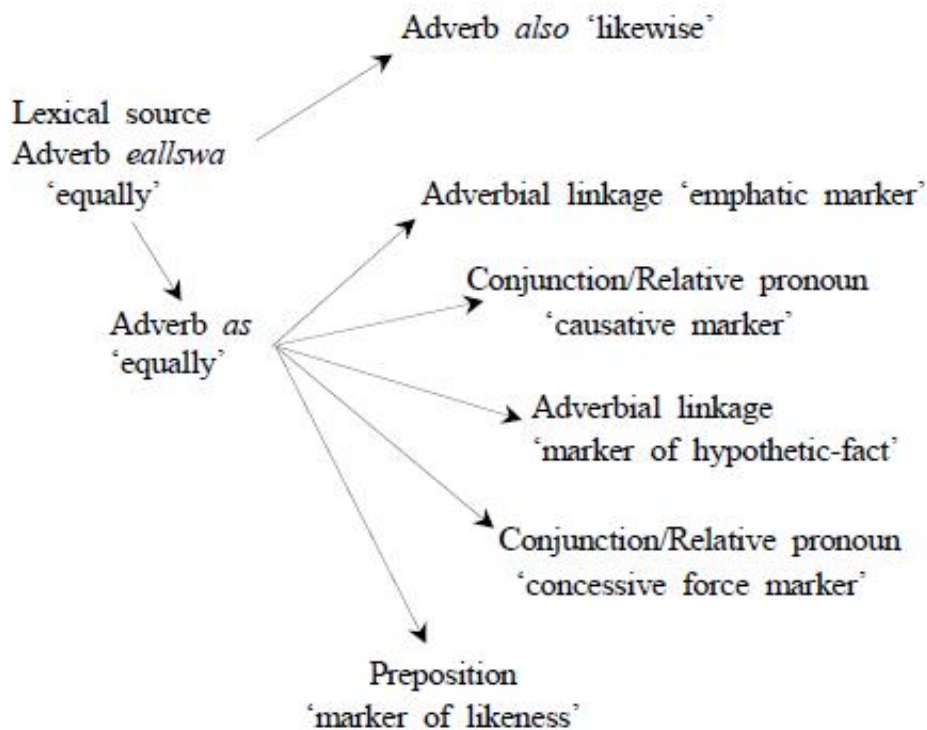
위의 (50)에서 *as*는 유사점을 의미하고 ‘like’로 대체 했을 때, *as*의 기능은 유사성 표지(simile marker)로서 두 개의 대명사나 NP로 표현된 요소를 비교한다. 통사적 배열구조는 다음과 같다. [NP/Pron VERB as NP]. (50a)는 *They*를 *clowns*로 비유하고 있으며 (50b)는 *We*를 *birds*로 비유되어 지고 있다. 반면 (50c)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이때 *as*는 연결표지(connective marker)로 *joy*나 *relief*를 소개하는 ‘likeness’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44)처럼 ‘equally’에서 ‘as if’로의 *as*의 의미적 확장은 더 나아가 (50)처럼 ‘likeness’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독립체나 사건과의 인접관계에 의해 유발되어지는 환유로 습득 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여러 다른 의미를 연결시켜 주며 어떤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 있는 다른 독립체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그것들 사이의 공통성과 유사성으로부터 그 의미를 추론 할 수 있다.

이처럼 *as*가 강조 표지, 가정적 사실 표지, 양보표지, 원인을 나타내는 표지등 다양한 문법표지기능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발달은 환유, 화용적 추론, 초점에 따른 의미확대와 주관화에 의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담화에 따른 의미적 기능을 확장시키는 언어사용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B. *As*의 문법적 발달

절을 연결해주는 *as*는 하나의 어휘 항목에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의관계를 총칭적으로 다의성(Polysemy)이라고 하며 다의성을 통해 *as*의 의미가 어떠한 문법발달을 거쳐 왔는지 다중문법화(Polygrammaticalization)⁹⁾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as*는 강조나 가정적 사실을 표현하는 부사 표지를 나타 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로 양보나 원인을 보여주는 반면 유사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표지로도 나타난다. 다음은 Baik(2012)에서 *as*문법의 발전을 <그림1>을 통해 설명 하고 있다. 다음을 확인 해 보자.

9) 하나의 단일 형태인 단어가 다양한 문법화 연결망 현상(Craig 1991).



<그림 1> Grammatical Pathway of *As*

위의 <그림1>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사인 *as*가 부사적 연결 장치로 그리고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로 변한 후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의미까지 확장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런 발달은 Heine & Kuteva (2002)에 의하면 의미론적, 범주화, 음운축약 등의 밀접한 관계의 메카니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as*가 부사에서 접속사 더 나아가 전치사까지의 범주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Heine & Kuteva (2002)는 *as*의 근원과 문법적 의미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as*의 의미적 발달은 어원결정가설¹⁰⁾에서 제안한 문법화에서의 규칙적인 의미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예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as*의 의미 발달의 큰 흐름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1) Semantic Evolution Pattern of *As*

[*equally* > a comparison of equivalence > *as if* > likeness]

10)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유사표지의 문법화는 어원어의 의미에 의해 문법소의 문법화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Bybee et al 1994:9).

의미변화와 관련 있는 또 다른 인지적 원리는 Hopper(1991)이 언급한 의미지속성이다. *as*의미는 과거의 어원 구문에서 볼 때 종류의 유사성을 나타내긴 하지만 완벽한 유사성이 아닌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어원의 어휘적 의미의 미묘한 차이는 *as*의 문법적 기능으로 여전히 지켜지고 있으며 *as*의 용법은 다음 (52)처럼 제한되어진다.

- (52) a. He uses the same books as you do.
 b. He uses the same books that you do.
 c. He uses the same books as you.
 d. *He uses the same books that you.

예문 (52)를 통해 *as*의 용법을 설명할 수 있는데 (52a)에서 *as*는 선행되는 'such'나 'same'을 지닌 것으로 관계대명사이다. 즉 'his books'와 'your one'사이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비교표지어로 행동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반면에 'the books he uses'인 (52b)의 *as*는 'you use'와 완벽히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52a)의 문장은 *as*뒤에 있는 서술어 생략과 함께 (52c)처럼 축약이 가능하며 이때 *as*의 용법은 전치사로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52b)를 (52d)처럼 문장을 축소할 때 *that* 앞에 있는 서술어는 남겨두면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 *As*의 용법

*as*는 다양한 통사적인 속성과 의미해석을 지니며 이러한 의미망을 통해 문법화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 해 봤다. 현대영어에서는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며 그에 따른 쓰임이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as*-구문 유형의 용법과 관용적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에 따른 주의할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Swan(2005)과 Huddleston and Pullum(2002)를 참고하여 현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as*의 용법을 크게 부사, 접속사,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나눠 그 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as*는 보통 *as ... as* 꼴로, 형용사·부사 앞에 쓴다.

- (53) a. Tom is as tall as I (am).
 b. I love you as much as she (does).
 c. I love you as much as (I love) her.

이와 같은 (53)은 비교의 *as*로 ‘(…)와) 같은 정도로, 마찬가지로’의 해석을 지니며 *as* 자체가 접속사로서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

- (54) a. The exam is not so as difficult as she expected.
 b. as far as/ so far as I'm concern.
 c. as long as/ so long as they play ball

또한 비교 표현이 부정일 때는 (54a)처럼 첫 번째 *as*에 'so'를 대체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교체는 (54b,c)같은 관용적 표현을 확립시켰으며 더불어 *as*다음에 흔히 격이 오는 경우 볼 수 있는데 이 때 격을 구별해야한다.

- (55) a. It was obvious that he had been consulted as well as I.
 b. He started to encounter kids as gifted as he, some even more so.
 c. Such as we are bred to face the artillery.

보통 격식적인 글쓰기에서는 중의성을 피하기 위해 다음 (55)처럼 *as* 다음에 목적격을 쓰는 것보다 주격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회화체에서는 후자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다음 예문 (56)이 설명해 주고 있다.

- (56) a. Oxford is as famous as Heidelberg.
 b. John lives in the same village as James.

즉 (56)처럼 주격보다는 목적격을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엔 *as*가 전치사로 간주하거나 뒤에 따라오는 동사가 생략된 접속사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전적으로 달려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as*다음에 이름이나 보통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격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57) a. He was as deaf as deaf.
- b. She lay as still as still.

그리고 (57a,b)처럼 종종 *as*의 앞뒤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몹시’, ‘무척’, ‘아주’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as ... as*는 (58)처럼 여러 형태로 생략되기도 한다.

- (58) a. It is (as) white as snow (is white).
- b. He can run as fast (as you).
- c. She is as wise as (she is) fair.

(58c)에서는 ‘그녀는 재색을 겸비하고 있다’ 의미로 동일인의 두 가지 성질의 비교로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접속사로 쓰여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이다.

- (59) a. He went as promised.
- b. Men usually like wrestling as women do not.
- c. He came up as she was speaking.

(59a)는 ‘~대로, ~와 마찬가지로’ 양태를 나타내며 (59b)는 대조를 나타내는 ‘~와 달리’로 쓰이고 있다. (59c)는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할 때, ~하면서, ~하는 동안’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59c)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as*대신에 ‘when, while’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계속되

는 상황에 *as*를 쓰이기도 한다.

- (60) a. As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Joe driving a Porsche.
- b. As I get older I get more optimistic.
- c. * As I was a child we lived in London.

또한 state verb¹¹⁾가 쓰였을 경우나 (60b)처럼 두 개의 상황이 함께 변할 때 에는 필히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60c)처럼 나이나 삶의 기간을 언급 할 때는 *as*를 쓰는 것보다 ‘when’을 더 선호한다. 덧붙여서 다음 (61)를 통해 *as*와 *when* 및 *while* 의 쓰임을 좀 더 비교해보자.

- (61) a. As I opened my eyes I heard a strange voice.
- b. While you were reading the paper, I was working.
- c. When I was a child we lived in London.
- d. I'll call you when I've finished the work

*as*는 (61a)처럼 두 가지의 일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쓰며, *while*은 (61b)처럼 기간을 가리킬 때 쓴다. 그리고 (61c)에서 *when*은 한 때의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61d)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했음을 보이는 것으로 두 가지 일이 각각 독립성을 가질 때에는 *when*을 *as*로 바꿔서 사용 할 수 없다. 덧붙여 동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just as , as soon as’를 사용 한다.

- (62) a. As it grew darker, it became colder.
- b. As I am ill, I will not go.

11) 상태 동사는 행동보다는 상태나 상황을 표현하는 동사로서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한 동사는 sit, lie, grow, hope, know, own, resemble ,understand 등이 있다. (Cowan 2008 : 352)

(62a)는 ~함에 따라 추이를 나타내고, (62b)의 *as*는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since, because, seeing that* 과 같이 ‘~ 때문에’ 로 쓰이는 경우이다. 더불어 이때의 *as*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다음 예문 (63)을 통해 확인해 보자.

- (63) a. As it's raining again, we'll have to stay at home.
b. Since he had not paid his bill, his electricity was cut off.

(63)처럼 *as*와 *since*는 이유가 이미 청자나 독자에게 알려졌거나 또는 문장에서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because* 와는 다르게 사용하며 주로 문장 처음에 등장한다.

- (64) a. Rich as she is, she is not happy.
b. Laugh as they would, he maintained the story was true.
c. This is freedom as we generally understand it.

(64a)는 양보를 나타내는 *as*로 사용된 것이며 (64b)는 [원형동사+*as*+주어+*may*]의 형태로 ‘아무리 ~하여도’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4c)는 바로 앞에 나온 명사를 한정하여 ‘~하는 바와 같은’ 으로 해석하며 절 이외에 과거분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도 수반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전치사로 쓰이는 *as* 의 경우를 정리해 보자. 먼저 자격으로서의 *as*를 나타낼 수 있다.

- (65) a. It is as a historian that he is best known.
b. I attended the meeting in my capacity as adviser.
c. *As a medical student his call-up was deferred.

자격을 나타내는 *as*는 (65a,b)처럼 평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65c)처럼 잘못된 선행사를 만들어 내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as* 다음에 오는 명사가 (65b)처럼 관직·역할·자격·성질 따위의 추상적 개념을 나타낼 때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 개인 또는 개개인의 물건을 나타낼 때에는 *a/an*을 붙인다.

- (66) a. But it is not so much as a picture of the time as as a study of humanity that Starvecross Farm claims attention.
 b. They reckoned him a good man,
 c. She used to come regular as clockwork.

게다가 (66b)처럼 목적격 보어를 이끌어 ‘~ 이라고, ~으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있다. 이때 *as* 생략으로부터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는 구문이 있는데 첫째, (66a)처럼 다른 *as*와 충돌하는 경우와 둘째, (66b)처럼 동사의 직접 목적어와 보충어를 취하는 구문(Ditransitive construction)이 있으며 셋째, (66c)처럼 일상적인 문맥에서는 평이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66a)같은 경우는 문장을 ... *more as a picture of the time than as a study of humanity* 과 같이 다시 써주는 것이 좋으며 (66b)와 같은 경우는 *as*를 생략했었으나 현재는 비교적 흔하지 않다. 더불어 Huddleston and Pullum(2002)에서 목적어를 두 개 지니는 동사들의 목록¹²⁾을 제공했으며, 현재는 *as*를 쓰는 것이 의무적이다.

- (67) a. The audience rose as one.
 b. Some animals, as tigers, eat meat.

(67a)는 ‘~처럼’ 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67b)는 ‘예를 들면,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보통 보기를 열거할 때에는 *such as*를 많이 사용 한다. (67a)

12) choose, consider, count, deem, elect, accept, acknowledge, regard, treat 등이 있다.

는 *like* 와 바꿔 표현 할 수 있으며 사물이 비슷할 때 사용하며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하는 일을 즉 기능을 나타낼 때도 쓴다.

이러한 *as*와 *like*는 쓰임이 다소 구분 짓기가 어려운데 먼저 유사성에 대해 사용하는 *like*를 살펴보자.

- (68) a. My sister looks like me (Not as me)
- b. He ran like the wind. (Not as the wind)
- c. He's very like his father.
- d. She's good at scientific subject like mathematics.

이때 *like*는 전치사로서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유사성을 나타낸다. 또한 ‘very, quite’ 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like* 앞에 쓸 수 있다. 더불어 예시를 제공하고자 할 때도 사용한다.

- (69) a. Nobody knows her as I do.
- b. We often drinks tea with the meal, as they do in China.
- c. On Friday, as on Tuesday, the meeting will be at 8.30.
- d. You look exactly like your mother did when she was 20.

반면 유사성을 나타내는 *as*는 접속사로 절 앞에 사용되거나, 전치사와 함께 시작하는 표현들로 현대 영어에서는 (69d)처럼 *like*도 종종 *as* 대신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비격체로 쓰인다.

- (70) a. I don't smoke, like Jane. (Jane smoke)
- b. Like Bill, I am not a conservative. (Bill is not a conservative)

게다가 (70)처럼 부정을 나타내는 절 다음에 *as*나 *like*를 사용하여 비교를 나타낼 때는 보통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반면 부정을 나타내는 절이 뒤에 왔을 경우엔

그 비교표현은 전체의 절의 내용을 나타낸다.

네 번째로는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용법과 계속용법으로 사용된다. 다음 예문 (71)을 통해 확인해보자.

- (71) a. As many children as came were given some cake.
- b. He is just such a teacher as we all admire.
- c. He was a foreigner, as I knew from his accent.
- d. She was late, as is often the case with her.

(71a,b)는 제한용법으로 선행사에 붙은 *as, such, the same*과 상관하여 ‘~와 같은, ~하는 바’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71c,d)는 계속용법으로 앞의 문장 또는 뒤에 오는 주절을 선행사로 하여 ‘그것은 ~이지만, 그 사실은 ~이긴 하지만’의 의미를 지닌다.

*as*를 부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등과 같이 품사별로 그 의미를 정리 해봤다. *as*는 그 용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능어 중의 기능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치사·접속사는 어느 것이나 연결하는 말이지만, 부사의 *as*도 실제로는 접속사 *as*와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런 뜻에서 *as*는 ‘연결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 if*와 *as though*를 비교하며 그 용법을 확인해보자. *as if*와 *as though*의 의미는 상황이 같아 보일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무언가가 사실일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언급한다.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도 사용한다.

- (72) a. It looks as if/ as though it's going to rain
- b. She was acting as if/ as though she was in charge.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복합전치사(compound preposition)로 분류할 수 있다.

- (73) a. There was a ragged edge to her voice now, as if she'd been crying.
- b. There was a ragged edge to her voice, as there would have been if she'd been crying.

(73a)를 (73b)처럼 *as*와 *if*사이에 추가적인 구조를 넣을 수 있다. 그러나 (73a)는 *as though*로 아무런 의미변화 없이 대체 가능하다. 반면 (73b)는 *though*로 대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강한 통사적, 의미적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like* 의미로도 사용된다.

- (74) a. It seems like it's going to rain.
- b. He sat there smiling like it was his birthday.

두 번째, *as*로 시작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 (75) a. As you know, next Tuesday's meeting has been cancelled.
- b. I'm sending you the bill, as we agreed.
- c. As is well known, more people get colds in wet weather.
- (* As it is well known)

이때 *as*를 사용함으로써 공통되는 기반사실 즉 청자나 독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as you know* 이외에 *as we agreed*, *as you suggested* 도 쓰인다. 또한 수동태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75c)와 같이 *as* 다음에 주어 *it*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as well as* 사용을 다음 예문 (76)을 통해 확인 해보자.

- (76) a. She's got a goat, as well as five cats and three dogs.
 b. As well as birds, some mammals can fly.
 (*Birds can fly, as well as some mammals)
 c. I have to feed the animals as well as look after the children.

(76) *as well as*는 *not only but also*와 같은 표현이며 (76b)처럼 어떤 정보가 이미 청자나 독자에게 알려진 것을 의미할 때도 이 표현을 쓴다. 그리고 (76c)처럼 부정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에 부정사는 (76c)처럼 *to*없이 사용가능하다.

- (77) a. She sings as well as playing the piano.
 b. She sings as well as plays the piano.

게다가 동사 뒤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종종 *-ing* 형태로 쓰며 (77a,b)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77a)의 의미는 'she not only plays, but also sings' 의미를 지니며 (77b)는 'her singing is as good as her playing' 의미이다.

네 번째, *as long as*는 현재시제로 많이 사용하며 미래의 생각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쓰는 관용적 표현이다.

- (78) a. I'll remember that day as long as I live.
 b. You can take my car as long as you drive carefully.
 (= ... on condition that you drive carefully)
 c. These meetings can last as long as four hours.

보통 상태의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로 쓰이기도 하며 (78c)처럼 숫자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길이를 강조하고자 사용한다.

- (79) a. As long as you have your receipt, we usually provide a refund.
 b. You may bring it so long as you keep it clean.

마지막으로 (79a)와 같이 범위, 때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 되어 있다. 반면 (79b)에서의 *so long as*는 ‘provided that, if only’처럼 제한,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as*구문에 대한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용법과 관용적인 표현을 제공하였다. *as*-구문의 통사론적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술어-*as*, 보충어-*as*들 다 S나 VP의 부가어 수식어자리에 위치한다. 둘째, 문부사의 삽입구처럼 분포성이 다양하다. 셋째, *as*-삽입절의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넷째, 이동분석을 통해 공소는 오직 국부적으로만 해석한다. 다섯째, 장거리의존성과 섬 제약을 준수한다. 여섯째, 기생공백을 허용한다. 일곱째, 도치분석을 통해 통사적 가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속성을 지닌 *as*-구문은 Potts(2002)에서 논의 한 것처럼 공소를 지닌 요소와의 결합에 따라 유형을 분류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이동분석을 통해 명제적 의미를 가진 요소를 수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의미론적으로 *as*-구문이 지니는 속성을 살펴보았다. *as*-구문은 통사적 속성을 바탕으로 의미론적 특징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의미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독립된 절로 단순히 주절의 의미에 보충설명을 더한다. 둘째, 의미적 기여는 관습적 함축형태로 구성된다. 셋째, 서술어 또는 명제의 선택이 자매관계제약 (sisterhood restriction)으로 인해 제한된다. 넷째, 부정어, 조동사, 또는 다른 연산자에 대해 중의적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미론적 특성은 Potts(2002), Lee-Goldman(2007)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명백하게 설명되진 않았으며 단지 주장과 가설일 뿐인 것을 보여 줬다.

마지막으로 *as*를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보면서 부사적 표지가 문법적 표지로 바뀌면서 접속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더 나아가 전치사까지 의미변화 과정을 확인했다. 이러한 의미변화는 문법화라고 일컫는 밀접한 관계의 의미망의 변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으며 *as*의 어원 역시 분석하여 다의성에 초점을 두면서 의미적 변화를 논의 했다. 이러한 연결어인 *as*는 인지능력 즉, 환유, 화용적인 추론, 초점의 가변성, 그리고 주관화를 살핌으로써 *as*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적 표지에 대해 동기부여를 했으며 *as*의 의미 확장은 어원결정가설(Source Determination Hypothesis)과 의미적 지속성원리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as*의 다양한 용법을 살펴보면서 부사로는 ‘마찬가지로’의 의미로 쓰이며 접속사로서는 ‘비교, 양태 상태, 비례, 한정, ~와 동시에, 이유’ 등으로 다양한 의미를 확인했고, ‘such, the same’등과 상관적으로 쓰여 ‘~하는 사람(who)’ 또는 절이나 그 일부를 선행사로 하여 ‘~이지만’의 의미를 지니면서 관계대명사의 쓰임도 확인했다. 더불어 ‘like’와 같은 유사성을 나타내거나 역할, 자격, 기능을 나타내어 ‘~로서’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도 확인했다. 덧붙여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과 함께 구분해서 알아둬야 하는 점들을 정리했다.

이상으로 *as*구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as*구문이 이동성으로 인한 통사론적 특징과, 문장내의 인접위치에 따른 의미론적 특징, 그리고 *as*의 의미들의 변화가 특히 유사성, 주관화, 환유와 같은 인지적 기제들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화용론적 특징을 지니는 것을 제시하여 *as*-구문이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인 정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불어 *as*-구문의 올바른 분석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앞에서 살펴 본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인 정보들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기가 쉽지 않으며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어휘나 문법 지식에 치중한 교육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 및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의미를 지닌 *as*구문을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인데 본 논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앞

으로 영어교사들의 *as*구문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as*구문은 문맥이나 상황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며 삽입된 구문과 같은 경우는 연결된 절에 표현된 명제에 대해 화자의 논평으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말하는 방식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부분적인 요소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첫째,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언어 학습을 강조하는 총체적언어학습의 교수법이 필요하며 둘째, 세부적인 지도로 단락이나 문맥을 예문으로 제시하여 유의미한 문맥에서 *as*구문의 교육이 의미적, 화용론적 측면과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통사적으로 *as*삽입구문은 임의적이며 있거나 없거나 연결된 절과의 문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 기능을 확인 시켜 주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용법을 교육시켜 실제적 담화를 통해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as*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특징을 살펴 *as*구문에 대해 분석을 했지만, 이 논문을 계기로 의미론적인 가설과 함께 형태론적 분석을 어휘적 정보를 구축하여 생성성과 의미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Baik, Junghye. 2012. On the emergence of diverse functions of *as*: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Discourse and Cognition* 19:3, 157-172.
- Bybee, Joan,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msky, Noam.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1986.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
- Cowan, Ron.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licover, Peter W. and R. Levine. 2001. Stylistic inversion in English: A reconsidera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9, 283-310.
- Culicover, Peter W. and S. Winkler. 2008. English Focus Inversion. *Journal of Linguistics* 44, 625-658.
- Engdahl, E. 1983. Parasitic Gaps. *Linguistics and Philosophy* 6, 5-34.
- Englebretson, R. 2007. Stancetaking in discourse: an introduction. *Stancetaking in discourse*. ed. by Robert Englebretson. 1-26.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eine, Bernd, and Tania Kuteva. 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pper, Paul J.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1, eds. by Elizabeth Closs Traugott and Bern Heine, 17-35.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loss Traugott. 2003. *Grammaticalization*,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Rodney, and Geoffrey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edy, Christopher. 1997. 'VP Deletion and "nonparasitic" Gaps', *Linguistic Inquiry* 28, 697-707.
- Kim, Jong-bok, and Peter Sells. 2011. *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Lee-Goldman. 2008. Supplemental Relative Clauses and Syntactic Generality. Paper presented at the *BLS 34 conference*.
- Lee-Goldman, R, and M. Ellsworth. 2007. *As-two* Constructions, not single prepo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81th LSA Annual Meeting*.
- Lee, Nam-Geun. 2010. Negative Inversion in Standard and Non-standard English: A Constraint-based Approach. *Studies in Modern Grammar* 62: 149-174.
- _____. 2013. *As-parenthetical constructions in English: A constraint-based approach*. *Linguistic Research* 30(2), 355-377.
-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201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ed.com/view/Entry/11307>>.
- Postal, Paul M. 1994. Parasitic and Pseudoparasitic Gaps. *Linguistic Inquiry* 25, 63-117.
- _____. 1997. *Islands*. unpublished manuscript. New York University.
- Potts, C. 200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As-parenthetical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0, 623-689.
- Rhee, Seongha. 2000. Frame of focus in grammaticalization. *Discourse and Cognition* 7:2,79-104.

- Ross,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 D. dissertation, MIT.
- Swan, Michael. 2005.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oo, Eun-jung. 2009. Supplementary As-Clauses: A Constraint-Based Analysis with Linearization and Underspecified Semantics. *Studies in Modern Grammar* 58, 59-88.
- _____. 2012. Syntactic Variability in Predicate-As Parentheticals. *Studies in Modern Grammar* 70. 129-153.
-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online. 2014.
<<http://www.yourdictionary.com/as#websters>.>